

입맛에 맞는 기사 ‘썩썩’... 포털, 구독형 뉴스서비스 본격화

네이버 PC 뉴스 홈 영역 개편
구독 기반 언론사 편집 뉴스 서비스
카카오 다음 뉴스, 구독모델 전환
다양한 형태 기사, 보드 형태 발행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서비스화면에서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 대신 자신이 구독한 뉴스를 모아볼 수 있는 ‘구독형 뉴스 서비스’로 전면 개편에 나선다.

네이버는 모바일 구독 뉴스서비스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PC 뉴스홈에서 구독 기반 언론사 편집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 카카오는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다음 뉴스’를 구독 서비스 모델로 전환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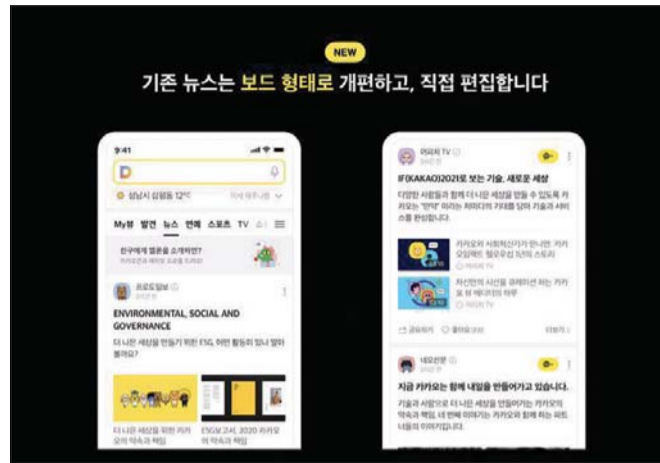
그동안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뉴스를 추천해보여주는 방식에 대해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올해는 대선을 앞둔 만큼 포털 사업자들은 이 같은 논란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조한 구독형으로 개편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구독경제 시장은 연간 40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 포털들은 이 같은 구독경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네이버의 뉴스 기반 언론사 편집 뉴스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뉴스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다.

/카카오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AI 알고리즘 뉴스 추천 서비스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구독이 콘텐츠 산업을 관통하는 흐름이 된 만큼 이 두 가지를 절충한 새로운 방안을 찾은 것이다.

카카오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 뉴스 구독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뉴스 보드는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고 아웃링크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콘텐츠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다음 뉴스 서비스 개편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알고리즘 추천 및 랭킹 방식의 뉴스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 2년 간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구독형 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뉴스 개편을 추진해왔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8월 카카오톡에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뷰’를 선보였고, 1월 중순 모바일 다음에도 ‘뷰’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뉴스서비스에 구독제를 먼저 적용한 후 상반기 중 PC 서비스에도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뷰’는 누구나 에디터로서 자신만의 관점을 담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행하고,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 언론사들의 가치있고, 다양한 기사가 알려질 기회를 마련하고자 ‘발견’ 탭을 운영하며, 이용자가 직접 ‘구독’한 채널의 보드만 모아 볼 수 있는 ‘마이뷰’도 신설한다.

카카오측은 “언론사는 뉴스,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기사를 직접 편집해 ‘보드’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언론사가 구독자와 관계를 맺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사용자들이 모바일에서의 구독 뉴스 사

용 경험을 PC에서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PC 뉴스 홈 영역을 개편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모바일에서 언론사를 구독해 보는 사용자 수가 230만 명을 넘어섰고, 한 사람당 평균 7개의 언론사를 구독하고 있다”며 “PC에서도 이 같은 모바일의 구독 뉴스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언론사 구독 뉴스, 언론사홈, 언론사별 기사 본문 등 모바일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환경에 먼저 적용되었던 구독 기반의 언론사별 뉴스서비스가 네이버 PC 뉴스홈에 적용, 모바일 언론사 편집판과 동일하게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기사들로 구성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언론사를 선택해 구독할 수 있고 구독 언론사 뉴스를 모아볼 수 있다.

구독한 언론사가 없는 경우, 언론사명 우측에 ‘+’ 버튼을 누르거나 뉴스 상단에 있는 ‘구독 설정’ 버튼을 눌러 추가할 수 있다. 또한, PC 우측 영역의 구독버튼을 통해 구독 언론사, 기사, 연재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언론사홈 우측에도 구독버튼이 동일하게 제공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지난해 11월2일 진행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조기 달성’을 위한 10대 유관기관간 업무협약식에서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4번째가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중진공

중진공 등 10개 기관, 韓 백신허브 조성 추가 지원

각 기관 지원사업 안내 온라인 설명회
백신기업 역량 강화·투자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만들기위해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추가 지원에 나섰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 달성을 위해 모인 10대 백신산업 지원 기관들은 이날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10대 유관기관 협의체 협력회의의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10대 기관에는 중진공 외에 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이들 백신산업 지원 기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K-글로벌 백신 허브 비전 및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당시 각 기관의 사업을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각 기관은 이날 KOTRA 서울 영곡

동 본사 K-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통합 사업 설명회를 통해 백신 산업 전주기 지원 시 각 기관의 역할과 목표, 올해 중점 추진사항 등을 발표했다.

중진공, 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는 백신 기업의 수출마케팅과 무역보험 지원 계획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백신 개발 및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기보, 신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 특성에 맞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SKC&C, AI 기반 농심 디지털 혁신 지원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SK(주)C&C가 농심의 종합 디지털 전환 파트너로서 농심 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정보시스템 혁신을 지원한다.

SK(주)C&C는 13일 농심의 전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농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SK(주)C&C의 ‘디지털 애셋(Digital Asset)’을 기반으로 농심의 전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스템 기

반을 확보하고 클라우드·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창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SK(주)C&C는 클라우드 기반의 ERP(전자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SCM(공급망 관리) 시스템 ▲모바일 기반 현장 영업 인트라넷 시스템 등 농심 시스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한화솔루션 초고압 케이블용 반도체소재 상업화

2분기부터 울산공장 상업생산

한화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초고압 케이블용 반도체소재의 상업화에 나선다. 다우, 엑손 등 글로벌 업체들이 독점해온 초고압 케이블 소재 시장에서 수년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자체 기술로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초고압 케이블의 핵심 소재인 EBA(Ethylene Butylacrylate Copolymer) 시험 생산을 완료하고 울산공장에서 올해 2분기 기부터 상업생산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에틸렌 기반의 EBA는 열과 습기에 강하고, 전기적 손상 방지 성능이 뛰어나 110킬로볼트(kV) 이상을 송전하는 초고압 케이블에 쓰인다. 해상 풍력발전소와 육지 변전소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나 대형 발전소의 에너지 송배전에 쓰이는 케이블 등 높은 품질이 요구되는 전력 케이블에 주로 사용되는 고부가 소재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솔루션은 2017년부터 5년간의 R&D를 거쳐 EBA 생산기술을 개발해 연산 4만톤 규모의 상업생산 설비를 갖췄다. 올해 EBA 생산이 본격화되면 초고압 케이블의 또 다른 핵심소재인 전력손실 방지용 절연체 XLPE(Cross Linked-Polyethylene)와 함께 패키지 화해 중국, 중동 등 해외 주요 시장에 수출을 늘려갈 계획이다.

한화시스템 항공기 첨단방어시스템 국산화

DIRCM, ADD 운용시험평가 성공

한화시스템이 항공기 첨단방어시스템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사진)’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한 ‘DIRCM 운용시험평가’를 성공리에 마치며 언제든 전력화가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

DIRCM은 아군 항공기를 공격하는 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MANPADS) 위협에 대응하는 장비다.

항공기에 장착돼 적의 미사일 위협 신호가 탐지되면 고출력 적외선 레이저(기만 광원)를 발사해 미사일을 교란시



켜아군 항공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첨단방어 시스템이다.

한화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는 DIRCM 시제를 실제 무기 체계에 적용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작전 운용 성능과 운용 적합성을 검증 받은 최첨단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했다. 이로써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DIRCM을 공급할 수 있는 성능 입증 근거를 마련했다.

/양성운 기자